

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2024년 12월 31일 송구영신예배 설교입니다.

<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

히브리서 10:35-39 / 새찬송가 550 (통일 248)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1. 새해에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때에는 인간의 지식으로 예측하는 것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빌어도 소용없고 운명이란 것도 없으며 점치고 사주보고 주술적인 신앙을 가진 것도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확실한 진리이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히4:12,13). 말씀만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기 원하는 적극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히10:38). 주님은 다윗처럼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삼상17:43-47). 다윗이 맞닥뜨린 골리앗은 오늘날 죄의 유혹으로, 질병으로 문제와 저주로 또 세상 통치자들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즉 온 세상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멸하며 병을 고치고 저주를 멸하며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도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주장한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담대한 신앙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입니다.

2. 새해에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삼시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하기 전 우선 기도하고 해야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건강하나 병들었거나 부요하든지 가난하든지 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잠 3:6).

가장 저주받은 것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 즉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롬1:21-25). 내가 나를 알고 나를 위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주님이 나를 더욱 사랑하시고 위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하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

다(막11:24). 기도한다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는 우리에게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만드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과거는 아직 지나가지 않았으며 미래는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또 기도할 때는 오직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잘 살펴 봐야 합니다(요일5:14,15).

새해에는 성령께 간구하고 도움을 받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됩시다.